

20세기 블루스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20th Century Blues

5.30
-6.17

두산아트센터 Space111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두산인문극장은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을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3년은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코로나19는 나이 든 이들에게 더 가혹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에게 치명률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해 돌봄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립은 육체적 분리뿐 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까지 의미한다. 코로나19가 노년이라는 나이에 대해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회의 노령화는 일찌감치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노령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더 길고 천천히 겪어가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아무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대로인 채로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슬픔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법칙에 균열을 내고 있다. 기존의 균형과 조화가 분열과 충돌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가 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이들의 돌봄이 후손들의 번성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나이를 이해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에서 나이는 계속해서 화두다. 어떤 시기는 나이 등을 기다리고 어떤 시기는 도망치고 싶다. 나이는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험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더해지는 탓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노화'와 '세대'로 이어지고, '인구', '돌봄', '테크놀로지'로 확장된다. 그 테두리에 '갈등'과 '사회문제'가 놓일 수밖에 없다. '두산인문극장 2023'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 나이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 지혜는 서로 다른 나이의 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것, 한 사람의 인생에 펼쳐진 매년의 나이를 일련의 호흡으로 어루만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두산인문극장
지난 프로그램 보기



공연

5.2-5.20 @Space111
댄스 네이션
작 클레어 배런 Clare Barron
번역 함유선
윤색/연출 이오진
드라마터그 장지영
출연 홍윤희 이미라 윤현길 마두영 황미영 백우람 강보람 부진서 장호인

5.30-6.17
20세기 블루스
작 수잔 밀러 Susan Miller
번역 최유솔
윤색/연출 부새롬
출연 이주실 박명신 강명주 성여진 이지현 우미하 류원준

6.27-7.15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작/연출 정진새
희곡개발리서치 백경관 Kayip
드라마터그 양근애
출연 김승연 최희진 황은후 전선우 김준우 권은혜 김정화 유다예

전시

4.19-5.20 @두산갤러리
눈은 멀고 구나 장서영 전명은

강연

4.3 (월) @연강홀
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철학자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4.10 (월)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생물학자 (뉴욕대 의대 교수)

4.17 (월)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불균형: 전망과 대응
이철희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4.24 (월)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사회학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6.19 (월)
갓생살기를 위한 삶 디자인 전략
정희원 의사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6.26 (월)
노인과 로봇
신희선 과학학자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원)

7.3 (월)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경영 인류학자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7.10 (월)
적정한 삶: 균형잡힌 삶이 역량이 되는 시대
김경일 심리학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20세기 블루스

20th Century Blues

작

수잔 밀러

Susan Miller

1944년 4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음악가이자 사업가인 아버지와 가수이자 예술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벅널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에 변호사였던 남편과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후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올해 79세가 된 수잔 밀러는 교육자이자 극작가로서 연극, 영화, TV, 웹 시리즈 등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여성들을 위한 미국 비영리 출판 기관 WIFP(Women's Institute for Freedom of the Press)의 일원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 창출에 이바지해 왔으며, 환자들로 구성된 글쓰기 워크숍 Legacy Project의 책임자로 3년간 활동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미 미국 대중에게 친숙한 작가다. 대표작으로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Obie Award와 1994/95 Blackburn Prize의 영예를 안겨준 <My Left Breast(1994)>가 있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재공연되는 작품이다. 뇌출혈로 죽음을 앞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Nasty Rumors and Final Remarks(1979)>는 그녀에게 첫 번째 Obie Award를 안겨준 작품이다. 이 외에도 Rockefeller Grant의 극작품 펠로우십, 구겐하임 펠로우십 등 다양한 상을 받았다. 스토리 에디터로 ABC의 <Thirtysomething(1987)>, CBS의 <Trials of Rosie O'Neil(1990)> 등 TV 시리즈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작가이자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한 인기 LGBTQ 웹 시리즈 <Anyone But Me(2008)>는 전 세계적으로 조회 수 6천만 뷰를 기록하며 WGA Award를 받았다.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향한 단순하지 않은 애정을 표현할 때 <20세기 블루스>는 진정으로 달콤하다.”

— 뉴욕타임스

“When the characters display mutual and not uncomplicated affection for one another, “20th Century Blues” is genuinely sweet.”
— The New York Times

“재미있고 밝다. 노화, 커리어, 자녀, 성적 취향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여성들이 잘난척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좋았다.”

— 시카고 트리뷴

“It’s funny and bright and I just liked the interplay of these women facing real problems — aging, careers, children, sexuality — in a way that is not condescending or stereotyped.”
— Chicago Tribune

“대본의 정감 어린 농담이 섞인 대화는 성차별, 외모지상주의, 노인차별, 유방암, 성소수자 문제, 모성애, 심지어 신문산업의 고민까지 여러 가지 뜨거운 쟁점들을 계산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다룬다.”

— 워싱턴포스트

“The script’s bantering conversations methodically touch on a range of hot-button issues — sexism, looksism, ageism, breast cancer, LGBT concerns, motherhood, even the woes of the newspaper industry — in a way that seems calculated.”
— The Washington Post

“<20세기 블루스>는 이제는 지나가 버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매우 구체적인 역동성을 포착한다.”

— 아트-루이빌

“20th Century Blues captures the very specific dynamic of looking back on lives that have spanned the last half of a century now passed.”
— Arts-Louisville

최유솔

연극
 〈나의 생존 가이드〉
 (STILL STANDING:
 A Musical Survival Guide
 For Life's Catastrophes)

곤충이 변태를 거쳐 성체가 되듯 인간인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거듭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을 수 없고, 내일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쉽 없이 계속되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운이 좋은 어떤 사람들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선 그 운명 같은 순간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이토록 늘 한결같이 소중한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이 든 사람의 하루는 젊은이의 하루보다 가치가 낮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적용되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 안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에 엄격한 한국 사회는 특히 여자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동안'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세월의 흔적을 감추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음을 향한 무조건적인 동경이 자연스러운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대니, 맥, 개비, 실 역시 나이 듦에 대하여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동지애를 주는 한편, 씩씩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앞서간 여자들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한 글자 한 글자 읊기면서 저 역시도 마음 한편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막연한 거부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할 용기일 것입니다.

시들어 가는 모든 것이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나이로 대변되는 숫자가 아닌 나의 의지와 잠재력이 내 한계를 결정짓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새름

달나라동백꽃

연출
 〈달콤한 노래〉 〈보이지 않는 손〉
 〈마우스피스〉 〈햇빛〉 〈썬샤인의 전사들〉
 〈그 개〉 〈2센치 낮은 계단〉
 〈로코찬 유랑극장〉 〈검은 입김의 신〉
 〈아이엠파인투〉 〈뽕뽕뽕〉
 〈파인땡큐앤드유〉 〈빨〉 〈달나라 연속극〉
 〈찌질이 신파극〉 외

수상
 2021 공연과 이론 선정 '작품상'
 〈달콤한 노래〉
 2016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썬샤인의 전사들〉
 2013 서울연극제 젊은연극인상
 (공동수상)

넌 다른 사람이야. 네가 저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순간,
 넌 늘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늘 저 문을 열고 엄마한테 오잖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또 다른 네가 더해지는 거야.
 우리 5살 아들. 우리 10대 사춘기 아들.
 수많은 네 모습이 여전히 여기 있어.
 — 〈20세기 블루스〉 대니의 대사 중

과거의 나는 되돌아볼 수 있지만
 미래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처럼 느껴집니다.
 '나한테 더해질 수많은 새로운 나'가
 점점 더 늙어가는 모습으로 그 안에 있을 텐데
 막연한 불안함만 느껴질 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노인들의 삶과 그 존재를
 빈 상자처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노인'인 엄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태프, 배우, 관객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들의 20세기 블루스 박진빈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역사학 박사, 미국사, 도시사 전공

미국의 인종문제, 도시갈등,
정원도시 운동 등에 대한 책과
논문을 썼다.

대표 저서
『백색국가 건설사』,
『도시로 보는 미국사』

각자 나름의 영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잡은 전문가로서 비교적 안정된 노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네 명의 여성, 대니, 실, 맥, 개비. 서로 다른 인종, 가정 형편, 성적체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들이 겪었을 인생의 우여곡절이 시대의 요청과 겹쳐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1955년생인 이들이 태어났을 때 미국은 전후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다. 반공주의 시대의 애국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번영일로였고 미래는 희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지나 철들고 보니 이들의 조국 미국은 완벽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극심했고, 냉전주의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개인의 삶이 침해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요동친 1960-70년대는 미국인들, 특히 양심적 젊은이들에게는 격동의 시기였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과 흑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민권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즈음 흑인만큼이나 소외되고 있는 다른 인구 집단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에 투신했던 동지들은 그렇게 페미니즘으로, 원주민 운동으로, 동성애 운동으로 진출했다.

후일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평가되는 베틀 프리단이 『여성성의 신비』라는 책에서 전후 세계의 풍요 속에 가려져 있던 중산층 가정의 여성의 불만을 지적해 낸 것이 1963년의 일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상적으로 보이는 교외의 안락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던 가정주부들은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불렀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걱정이라고는 저녁에 퇴근할 남편에게 차려줄 저녁 메뉴와 아이들의 교육 같은 것뿐일 이들은, 사실 모두 잠든 밤이면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한숨을 쉬며 “이게 전부인가?”라고 자문한다는 것이다. 똑똑하고 잘났던 여학생들, 이웃이자 동료였던 여자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프리단의 책이 던진 질문에 이상적 가정생활의 신화에 갇혀 사회에서의 자아 성취가 차단되어 있던 여성들의 말 못 할 고뇌가 공론의 장으로 터져 나왔다.

프리단의 책이 충격이었는지 몰라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이의 제기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흑인에게는 시민권이 1864년에, 참정권은 1865년에 헌법 수정조항으로 확보되었으나, 여성의 참정권은 1920년에야 주어졌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에 흑인 대통령은 존재했으나 아직 여성 대통령은 배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새삼 여성이 처한 역사적 현실을 상기시킨다. 그런 점에서 흑인 남성보다 백인 여성이 마이너리티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일까?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평등법은 1923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프리단의 책을 계기로 케네디 대통령은 성평등법의 재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지만, 그 위원회는 성평등법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거부해 버렸다. 이에 프리단을 위시한 여성들은 NOW(전국여성협회)를 조직했다. 반전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 조직들에서도 페미니즘이 성장했다. 소위 “제2의 물결” 페미니즘의 시대였다.

제2의 물결 페미니즘의 최대 성과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권리로서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1973년의 대법원 판례, 즉 ‘로 대 웨이드’ 사건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2022년에 새로운 판례에 의해 무효가 되기까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50년간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성평등법은 아예 통과도 되지 못했다. 성평등법이 통과에 가장 근접했던 1977년, 이것이 오히려 가정주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여성성과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으로 법제화를 좌절시켰던 것은 또 다른 여성 집단이었다. 낙태권이 인정되자 성평등법만이라도 막겠다고 보수세력이 결집한 결과였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여성 내부의 차이를 이용한 분열의 논리로 뒤틀어 놓았다.

성평등법의 좌절은 다가올 1980년대 미국 사회 보수화의 전조이기도 했다. 1981년부터 8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근본주의 개신교, 이상적인 가정생활, 남녀의 성 역할 분리, 동성애 반대 등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다. 그의 임기 중 미국은 기업과 부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감축하여 복지정책을 축소시켰다.

외교적으로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독트린을 설파하며 소련과의 관계를 경색시켜 냉전 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 미국 사회의 보수화는 그 이전 시대의 민권운동, 학생운동, 페미니즘, 소수집단 운동 등과 같은 개혁적 운동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길바닥에서, 광장에서, 물 대포와 사냥개의 공격을 헤치고 개혁 운동의 부름에 뜨겁게 응답했던 이들은 과연 그들이 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 불과 10-20년 사이에 이처럼 역풍을 맞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계속했다. 결국 미국의 일방주의적 중동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 센터가 테러범의 공격을 받았다. 벌건 대낮,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자 세계 무역의 중심이 관통당했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적의 침략을 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빈번한 총기 사고로 내국인들끼리 죽고 죽이는 나라다.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는 무기 소지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어불성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자유로움은 대체 무엇일까. 잇을 만하면 또 발생하는 대량 총기난사는 미국의 학교, 쇼핑몰, 클럽, 관공서와 길거리, 그리고 각 가정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이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배출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피부색이 검은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평등권을 위해 싸워온 이들에게 큰 보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당연한 얘기를 외쳐야 하는 나라, 대통령이 흑인이거나 말거나 거리에서 흑인들은 공권력에 의한 죽임을 끊임없이 당하는 나라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흑인 대통령이 나간 자리는 부패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에, 거짓과 증오와 편견의 정치를 조장하는 최악의 대통령이 차지했다. 그러니 역사는 한 발 수줍게 나갔다가 이내 다시 한 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격동의 세월, 투쟁의 거리 어디선가 처음 만나 친구가 되어 오십 년을 같이 한 네 여인이 나누는 대화는 얼핏 보기엔 사소해 보인다. 성형수술, 부동산 투자, 데이트 앱, 다이어트와 같은 주제는 그들이 살아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절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일상적이고 상업적인 화젯거리다. 하지만 일상 없이 어떻게 역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노년에 접어든 그들의 일상은 엄연히 그들이 걸어온 미국의 현대사 위에 서 있다.

유명 사진작가인 60대 여성 대니는 뉴욕현대미술관(MoMA) 개인 회고전을 앞두고 있다. 자신의 지난 작업을 가장 잘 표현할 사진은 무엇일까? 대니는 젊은 시절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년 한 번씩 만나 사진을 남겼다. 40년간 꾸준히 촬영한 친구들의 사진을 이번 회고전에 전시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대니의 바람과 달리 친구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 대니** 저명한 사진작가. 회고전에서 친구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싶어 한다.
- 실** 부동산 중개인. 남편과 별거 중. 빛을 지지 않고 먹고살기 위해 무던히 애쓴다.
- 맥**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저명한 저널리스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파트너와 동거 중.
- 개비**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열정적인 수의사. 남편과 보스턴 거주.
- 베스** 대니의 어머니. 91세.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 사이먼** 대니의 아들. 30대 초반. 진보 성향의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한다.



이주실

베스 역

연극

〈유리동물원〉 〈맥베스〉 〈세일즈맨의 죽음〉 〈산국〉 〈장마〉 외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러브〉 〈스핏 파이어 그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외

영화

〈엄마의 공책〉 〈장옥의 편지〉 〈약장수〉 〈부산행〉 〈아내가 결혼했다〉 외

드라마

〈현재가 아름다워〉 〈경이로운 소문〉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외

표창

201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사업
유공자

수상

2023 들꽃영화상 조연상
1997 최우수예술인상
1988 백상예술상 연기상
1980 동아연극상 연기상
1978 대한민국연극제 연기상



박명신

맥 역

연극

〈히어〉 〈집집〉 〈오일〉 〈들꽃〉 〈원파인데이〉 외

영화

〈모가디슈〉 〈시〉 〈사도〉 〈군도〉 〈부곡 하와이〉 〈낙타들〉 외

드라마

〈삼식이 삼촌〉 〈미남당〉 〈불가살〉 〈괴물〉 〈그녀의 사생활〉 외



강명주

맥역

연극

〈인간이든 신이든〉, 〈SWEAT 스웨트〉
〈피와 씨앗〉, 〈히스토리 보이즈〉
〈코리올라너스〉, 〈천국으로 가는 길〉
〈말들의 무덤〉, 〈먼지섬〉 외



성여진

실역

연극

〈백베스〉, 〈파묻힌 아이〉, 〈도덕의
계보학〉, 〈이광수의 꿈 그리고 꽃〉
〈대신 목자〉 외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 〈한공주〉 외

드라마

〈스카이캐슬〉, 〈로스쿨〉



이지현

개비 역

연극

〈편입생〉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이게 마지막이야〉 〈막다른 곳의
궁전〉 〈로퐁찬 유랑극장〉 외

영화

〈드림〉 외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린마더스클럽〉 〈서른, 아홉〉
〈안녕 드라큘라〉 〈더 패키지〉 외

수상

2017 하얀수건상
2012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2009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우미화

대니 역

연극

〈사월의 사원〉 〈빈센트 리버〉 〈공포가
시작된다〉 〈누란누란〉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외

영화

〈비상선언〉 〈담쟁이〉 〈7년의 밤〉 외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스카이캐슬〉
〈블랙독〉 〈라이프〉 외

수상

2017 SACA 최고의 연극배우 여우주연상
2013 대한민국 연극대상 여자연기상
2011 대한민국 연극대상 여자연기상
2011 서울연극제 연기상



류원준

사이먼 역

연극

〈달콤한 노래〉 〈보이지 않는 손〉
〈햄릿〉 〈메리, 크리스, 마쓰〉
〈아버지들〉 〈헤밍웨이(He Means Way)〉 〈어딘가에, 어떤 사람〉
〈포트폴리오〉 〈그 개〉 외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외



리딩/윤색 과정

2023.4.3 - 2023.4.14

이들의 말이 우리에게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자 했다. 먼 타국의 이야기로 남지 않게끔, '40년지기 오랜 친구들의 대화'가 갖는 의미를 믿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인물을 구체화하고, 그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말이 향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었다. 연습실에서는 함께 서로에 대해 질문하고, 모두가 답을 할 수 있었다.

미국 정치문화사 강연

2023.4.11

"나한테는 너희들이, 역사의 시간표니까. 너희들이 로큰롤이고, 우주선 발사고, 시민 평등권이라고. 가장 엄청난 변화들이 기록된 수십 년의 역사가 바로 너희들이야."

인물들이 살아온 20세기는 어떠했을까.

박진빈 교수의 강연, 일지 발췌 및 요약.

1910 - 1950

(1차대전-대공황-2차대전-냉전)

인물들이 태어나기 이전~유년 시절

- 55년생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들은 전쟁 후 냉전 시대를 경험했다. 유년은 미국의 최강대국 시절이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모두 미국의 힘으로 승전하며 인정받았다.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다.
- 소련과 함께 2차 대전의 승전을 얻었으나, 체제가 달라 적대 관계가 되었다. 냉전의 시대가 찾아왔다.
- 이 시절에 연방 예산이 급증하며, 국방군수 산업에 매진한다. 미국의 국경 문제가 아닌 데도, 타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소련과 미국을 대변하듯 대리전을 치른다. 그러한 전쟁은 여태 개발했던 기술을 실험해 보는 무대가 된다.
- 매카시즘. 국토 내에서는 미국에 침입한 공산주의자가 있다며 색출한다. 미국 제도에 문제를 거는 행위는 모두 공산주의적 행위로 판단하여 탄압했다. 지식인, 예술인 등 피해를 보았다. 후에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960 - 1970

(미국 남북전쟁-베트남전-반전운동-인권 운동-베트남전 철수)

인물들의 사춘기~대학 시절 (인물들의 첫 만남)

- 이들의 세대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라왔으나, 자라고 난 뒤에 보니 자신들의 국가가 괴물이라고 느끼며 회의감을 갖는다. 이들이 흑인 인권 운동, 반전 운동을 펼친다. 시위는 일부의 일이 아니었으며, 무척이나 대중적이었다.
- 인종: 가장 늦은 노예 해방을 한 나라이다. 해방 후에도,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이전 주인들에게 소작을 얻어 일을 했고, 북부로 이주했을 때 주민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브라운 사건은 불평등한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여 승소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주지사가 전체 휴교령을 내려 모두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등 반발한다. 백인 대통령 케네디와 흑인 주지사 마틴 루터 킹의 만남은 상징적이었으나, 케네디는 그해에 암살당한다. 케네디의 부통령인 존슨 또한 인권 향상에 힘썼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했다.
- 전쟁: 베트남전이 길어지며 반전 운동이 시작됐다. 참전했던 사람들이 반전 운동에 불을 붙인다. 그들은 "남베트남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학살 사건에 가담하며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미국이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의 인종 문제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타국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에 반감이 커진다. "돈은 부자가 벌고, 전쟁은 가난한 자들이 한다."
- 정치: 닉슨의 워터게이트. 불법적인 선거 운동 스캔들이 터지며, 탄핵 직전 사임한다. 민주당의 선거 위원회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혐의이다. 닉슨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을 덮고자 하는 정황이 증명된다. 또한 그는 꾸준히 베트남전을 확대시켰다. 승전을 얻지 못한 채 철수하며,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다. 이에 미국 국론은 마비된다.
- 시위: 성취해 낸 줄 알았던 법안이 실행되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자, 흑표범단이 만들어진다. 운동권 내부의 여성 차별로 인해 여권운동이 이어진다. 70년대에 퀴어 인권 운동이 본격화된다.

1980 - 1990

인물들의 20~40대

- 81년~90년의 대통령은 레이건이다. 닉슨과 더불어 가장 공화당적인 사람이다. 60-70년대 사회운동으로 질서가 무너졌으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요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빈민 비난, 흑인 조롱을 행했다.
- 미국이 케인즈주의에서 후퇴하며, 신자유주의를 택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적 자유만 추구한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지우며, 사회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었다.

인서트 사진 회의 & 촬영

"온 집안을 휘저으면서 신나게 춤추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늦은 오후가 돼 버린 거야."

40년간 함께 한 친구들의 역사가 사진에 담겨야 했다. 크게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컨셉을 잡았다. 대본에 기재된 사진들 외에는 함께 상상하며 구체화했다. 촬영 당일, 아침부터 시작하여 밤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아침에 찍은 70년대의 사진을 다시 보자, 오래전 기억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의 40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의 역사가 대니의 카메라에 담겼음을 실감했다.



공연 전

세상에는 아이, 어린이, 어른, 노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또한 앞선 과정을 지나 어른이 되었듯, 노인이 될 것이다. 프로덕션의 막내로서는 내게 다가올 일상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세대에게 기꺼이 다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분의 거대한 역사를 지닌 채 살고 있으므로.



나는 연극과 소원한 사이로 지내지 않았을까.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난생처음으로 연극을 보았다. 연극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허공을 가로지르는 눈빛과 대사들이 무척 강렬하게 다가왔다. 연극은 공기를 주무르는 힘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나는 작고 미미했다. 공연과 나 사이의 여백을 만들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다가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다.

나의 도구로 사진을 택한 건 여백을 너끈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나의 현장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랬다. 인물과 풍경을 오가며 사진을 찍다가 〈20세기 블루스〉라는 작품에 도착해 있었다. 첫 리딩을 하는 날.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작품을 훑는 연출님과 배우님들을 보며 흠칫 놀라고 말았다. 모두가 한 곳에 융화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 생소했기 때문이다. 연극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낀 난감함이 나를 무너트리는 감동이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다.

나는 〈20세기 블루스〉의 사진작가라는 직책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이 연극의 주인공인 사진가 대니에게 큰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보다는 연극을 짓고 있는 모두에게 자꾸만 관심이 간다. 이야기를 짓고 허물고 배역을 입고 벗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감동하고 있다. '인간애'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른다. 〈20세기 블루스〉와 대니가 내게 물려준 것이다.







대니, 실, 맥, 개비 네 명의 친구들은 각자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저물어 가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에 씩씩함과 슬픔, 분노 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만큼은 일상적 의상 속에서도 각자의 서로 다른 개성이 생동하도록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술가이자 열정적인 대니는 자연스럽게 시원스럽게, 외모적 이미지가 중요한 부동산 중개인이며 친구들에게 은근한 자격지심도 있는 실은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당당하고 스마트한 맥은 깔끔하고 매니쉬하게, 엉뚱하고도 따뜻한 개비는 사랑스럽고 포근하게 그려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베스는 여전히 생기와 사랑스러움을 간직한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멋스러움을 한껏 살렸습니다.

청년인 대니의 아들 사이먼은 젊은이의 자유분방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극 중 인물들에게 에너지를 더해주도록 구상했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두가 개성을 지닌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의상 안에서 섬세하게 조율한 작업입니다.





**“여성이 6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섹스리스가 되거나, 매력을 잃거나,
투명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작가 수잔 밀러 Susan Miller





20세기 블루스 20th Century Blues

5.30-6.17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 수잔 밀러 Susan Miller

번역 최유솔

윤색·연출 부새롬

출연 이주실 박명신 강명주 성여진 이지현

우미화 류원준

조연출 진윤선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무대디자인·무대모형제작 송지인

무대제작 wa stage(와 스테이지)

(대표: 조환준 / 제작팀장: 이범용 /

제작팀: 이승용 차승호 윤진상 정병문 김용선)

작화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 작화팀: 박지원 김미경 이재형)

조명디자인 최보운

조명팀 STAGWORKS

조명크루 정우원 정주연 최인수 유보민 윤혜린

김서라 이현직 김슬기

조명오퍼레이터 김서라

사운드 카인(Kayip)

음향감독 김여운

음향크루 김우람

음향오퍼레이터 최법준

영상디자인 윤민철

영상프로그램머 김재성

영상크루 김석기

영상오퍼레이터 윤유리

의상디자인 이윤진

의상어시스턴트 방예원

의상제작 옷장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소품팀 김예솔

사진작가·홍보사진촬영 황예지

사진어시스턴트 정현엽

접근성매니저·자막해설디자인 이청

음성해설 대본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서수연

음성해설 낭독 류원준

자막해설오퍼레이터 임민정

음성해설오퍼레이터 강윤지

관객과의대화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접근성 안내진행 정혜민

라이선스 코디네이터 박혜영

무대크루 이호철 김근혁

그래픽디자인 콘택트(kontaakt)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

사진기록 네버더레스

영상기록 헤즈스튜디오

인쇄 으뜸프로세스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이정연

전시기획 최희승 장혜정 박소연 김하은

교육기획 박찬중 정다운 이보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정소리 이지혜

티켓 이한별 최시윤

사무 박세연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조명 황동철 양은지

무대 강현후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20th Century Blues

By Susan Miller

License managed by Harmonia Holdings, Ltd.
under special arrangement with Dramatists
Play Service, Ltd.



2024 두산아트랩 공모 안내

두산아트랩은
공연·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연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7월 12일(수)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10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대상

-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장르 제한 없음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공연기간

2024년 1-3월

선정인원

- 8명 내외
- *개인만 신청 가능
 - *1명당 최대 2편까지 지원 가능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전시

접수기간

2023년 7월 18일(화) - 8월 1일(화)

지원내용

두산아트랩 공모선정자 전시참가
(제작지원비: 1명(팀)당 300만 원)

대상

- 35세 이하
- 한국 국적
- 개인전 1회 이상

전시기간

2024년 1-2월(선정작가 그룹전)

선정인원

5명(팀)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포트폴리오

두산아트센터 2023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광부화가들 연극 2022.12.1-1.22

작 리 홀 연출 이상우 김한내 김미란

회란기 연극 3.10-4.2

원작 이장부 각색/연출 고선웅

장수상회-LAST DANCE 연극 4.21-5.21

작 이연우 전용석 연출 서정완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6.13-8.13

작 앨런 베넷 연출 김태형

엔딩노트 뮤지컬 9.21-11.12

작 주형모 작곡 이지혜 연출 윤한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뮤지컬 11.30-2024.2.18

작사/작곡 닐 바트람 극본 브라이언 힐

Space 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3

롱피쓰 연극 2.2-2.4

작 김도영 연출 손정강 출연 이은지 최경훈

당신은 초록색 펜일까 그걸 친

손일까 연극 2.9-2.11

작 이소연 연출 서의경

아파야 낫는다 건강백세! 다원 2.16-2.18

구성/사진 이성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연극 2.23-2.25

구성/연출 손은지

페이스 타임 연극 3.2-3.4

작 공동구성 연출 박세련

아란의 욕조 연극 3.9-3.11

작 이사회 연출 손은재

국산예수 연극 3.16-3.18

작 공동창작 연출 전용

언스코치드 연극 3.23-3.25

작 루크 오웬 연출 최호영

두산아트랩 극작가 2023 3.30-4.1

작 작은 임태은 김연재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댄스 네이션 연극 5.2-5.20

작 클레어 배런 연출 이오진

20세기 블루스 연극 5.30-6.17

작 수잔 밀러 연출 부세롬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연극 6.27-7.15

작/연출 정진세

공동기획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판소리 4.8-4.22

각색/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연극 7.22-8.6

작 스테파노 마시니 연출 이은준

DAC Artist

잘못된 성장의 사례 연극 9.5-9.23

작/연출 강현주

러브 앤 인포메이션 연극 10.17-11.4

작 카릴 처칠 연출 진해정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설유진 신작 연극 11.21-12.9

DOOSANG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3 1.11-2.15

이은희 개인전 3.8-4.5

두산인문극장 기획전-눈은 멀고 4.19-5.20

김영나 개인전 6.7-7.8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7.26-8.30

정희민 개인전 9.13-10.21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5-12.16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3: 강연 4.3-7.10

두산아트스쿨: 미술 3.16-4.6, 10.5-10.26

두산아트스쿨: 공연 7.28-8.18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7.4-8.17, 10-12

공모 일정

공연

DAC Artist 1.9 - 1.26

공동기획 5.8-6.7

두산아트랩 공연 6.12-7.12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2.6-2.17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4.3-4.14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